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 재개

서울대교구는 지난 4월 20일, 교구장 명의의 공문을 통해 “4월 23일(목)부터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를 재개” 하며 “단체 활동과 모임 관련해서는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중단을 연장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서울대교구 미사 재개 시 유의 사항’(코로나19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수칙)을 알려드립니다.

※ 미사 참석자 구분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감염병 확산의 우려가 있기에 미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주일 미사 참례 의무 제외).

- ① 확진 여부와 관계없이 발열, 기침, 인후통, 숨 가쁨, 감기, 기관지염, 폐렴 같은 호흡기 증상과 설사, 근육통, 피로감 등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있는 신자
- ② 최근 2주 이내에 해외여행력이 있는 신자
- ③ 고령자(65세 이상),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과 같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건강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신자
- ④ 면역력이 약한 초·중·고등학생

※ 미사 전 준비

- ① 성체 분배 봉사자는 미사 전후에 3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 ② 본당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성당 입구에서 체온을 측정하고 손 세정제를 사용한 뒤 성전에 들어갑니다.
- ③ 감염자가 확인될 경우의 역학 조사를 대비하여, 미사 참석자는 참석 기록을 남깁니다(다른 본당 소속인 경우, 소속 본당과 이름도 적습니다).

※ 미사 중 유의사항

- ① 모든 신자는 미사 시간 내내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성체를 모시는 순간에만 마스크를 벗습니다.
- ② 성체 분배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③ 미사 중 성가나 기도문 합송은 되도록 피하고 미사 경문 중 신자들의 응답 부분은 해설자가 대신하고, 성가는 필요에 따라 독창이나 오르간 연주로 대신합니다.
- ④ 미사 도중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였더라도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립니다.
- ⑤ 미사 중에 악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합니다(평화의 인사 등).
- ⑥ 성체 분배에 앞서 사제가 큰소리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 번 말하며, 신자들은 다함께 “아멘”이라고 한 번 응답합니다(개별 성체 분배 때에는 ‘아멘’을 침묵 중에 각자 속으로 합니다).
- ⑦ 신자들은 양형 영성체를 하지 않습니다.
- ⑧ 성경과 성가집은 공용이 아닌 개인의 것을 사용하며, 현금 봉투 등의 물품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⑨ 미사 중 본인이 사용한 주보는 성당에 두고 가지 않고 집으로 가져갑니다.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미사 외 활동은 모두 금지합니다.

미사 재개 시
유의사항 QR

5월1일(금)은 ‘근로자의 날’로 교구청 각 기관 휴무입니다

교구장 염수정 추기경, 부처님 오신 날 축하 메시지 발표

친애하는 불자 대중 여러분!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한불교조계종 진제 종정예하와 총무원장 원행 스님, 원로 고승대덕 스님들께도 봉축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국가적 재난 상황이지만, 우리 종교계가 솔선수범하며 국난극복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한국 불교가 이번 부처님 오신 날 봉축행사를 이동하는 대승적 선택을 하신 데 큰 박수를 보내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보냅니다. 중생에 대한 자비와 인류의 행복을 바라는 종교의 가치는 불교나 천주교 모두 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염병으로 초래되는 불신과 원망, 분노 대신 자비와 평화, 사랑이 세상 곳곳에 퍼지도록 종교계가 함께 힘을 모으고 모범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66년 5월2일 김재용 요셉 신부(29세)
- 1986년 4월29일 봉희만 안토니오 신부(70세)
- 1993년 4월27일 김정수 레오 신부(60세)
- 2017년 4월27일 홍문택 베르나르도 신부(64세)

서울주보 카카오톡 채널 개설

서울주보 채널을 구독하시면, 매주 발행되는
서울주보와 교구소식을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주보 채널 QR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